

광주 유통업계, 연말 특수에도 매출·수익 ‘먹구름’

■ 광주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분석

4분기 경기전망 100...3분기 144서 기준치로 하락
소비 위축·운영비 부담·편의점·슈퍼마켓 악화 전망
업체 57.5% “연말 할인행사 매출 증대 효과 제한적”

광주지역 소매유통업계가 연말 특수에도 매출과 수익성 개선을 낙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절기 성수기 기대감으로 급증했던 경기전망이 보합 수준으로 내려앉은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과 운영비 상승 부담이 겹치면서 연말 할인행사의 매출 회복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1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소매유통업체 4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분석한 결과, 기준치인 100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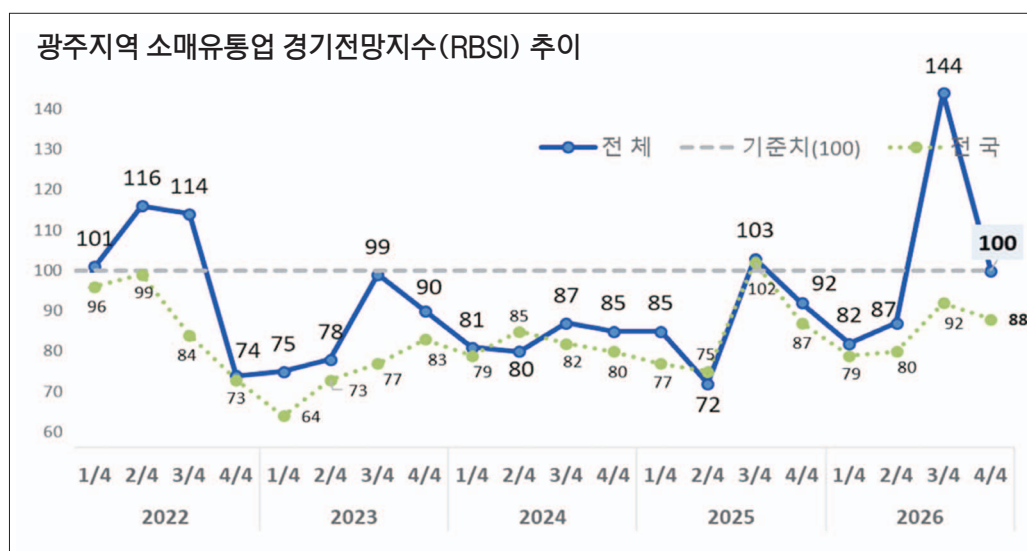
기록했다.

지수는 지난 3분기 144까지 올랐으나 4분기에는 44p 하락했다.

여름 성수기 효과가 일단락되고 연말 마케팅에 대한 기대와 소비·비용 부담이 맞물리면서 보합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경기전망과 달리 매출과 수익 전망은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매출 전망지수는 3분기 136에서 4분기 91로, 수익 전망지수는 130에서 88로 떨어졌다. 소비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료제공=광주상공회의소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과 연말 할인 경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반영된 결과다.

업체별 전망도 엇갈렸다.

대형마트는 150에서 133으로 하락했지만 기준치를 웃돌며 호전 전망을 유지했다. 백화점은 200에서 100으로 내려 보합

을 나타냈다.

반면 편의점은 118에서 77로, 슈퍼마켓은 118에서 92로 떨어져 경기 악화를 예상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인건비·상품 매입 비용 부담, 다른 유통 채널로의 고객 이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용 상승을 우려한 비율도 42.6%에서 48.9%로 늘었다.

연말 특수와 할인행사가 매출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 않았다.

매출 증대에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29.8%,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27.7%로 부정적인 평가가 57.5%를 차지했다. 긍정적인 응답은 10.6%에 그쳤다.

연말 할인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도 46.9%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46.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비 현장에서는 필요한 물품만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소량·목적형 구매 비중이 늘었다는 응답은 48.9%로, 줄었다는 응답(17.1%)을 크게 웃돌았다. 가성비·초저가 및 실속형 상품 선호가 늘었다는 응답도 27.7%로 프리미엄·고가 상품 중심 응답(12.8%) 보다 높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실속형 소비가 확산되는 만큼 유통업계의 상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내수 활성화 노력이 현장의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상공계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력거래소, 청년 취업 지원 아카데미 개설

3개월간 교육 진행...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육성

미취업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에 전력거래소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최근 임교식을 갖고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3개월 간의 교육을 시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이 주도해 기업 특화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 규모는 미취업청년 1만 명 수준으로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디지털 인재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기관 역할 및 주요 직무에 대한 실무자 직강과 함께,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도 준비되어 있으며, NCS, 면접 등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력 분야에 특화된 촘촘한 교육 과정과 함께 현재 전력거래소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청년 실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청년 고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그 청년들이 미래 전력산업 분야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신세계, 겨울 채비...아우터로 소비자 공략

경량 패딩부터 플리스까지

기온 맞춰 신상품 선보여

전남광주지역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경량 패딩과 플리스 등 간절기 아우터를 찾는 소비자들 늘고 있다.

2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플레이스팟 입점 브랜드들은 기온 변화에 맞춰 경량 패딩과 플리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경량 패딩은 가벼운 무게와 보온성을 앞세워 아웃도어 활동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우터도 의류를 일상복과 조합하는 고프코어 룩이 주목받으면서 간절기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여기에 보온성을 갖춘 경량 패딩부터 세탁과 관리가 비교적 편리한 플리스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다.

뉴발란스는 올해 경량 패딩 제품을 예년보다 일찍 선보였다. 대표 상품인 플라잉 77 슈퍼라이트 후드 경량 패딩은 거위털을 사용해 가벼운 착용감과 복원력을 갖췄다.



전남광주지역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경량 패딩과 플리스 등 간절기 아우터를 찾는 소비자들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 플레이스팟 입점 브랜드들이 기온 변화에 맞춰 경량 패딩과 플리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뉴발란스 매장서 직원들이 경량 패딩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 중이다.

캠핑 감성을 강조한 브랜드 디오디의 우사기 경량 패딩 재킷도 눈길을 끈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토끼 로고와 독특한 디자인을 앞세워 차별화된 스타일을 찾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플리스는 부드러운 촉감과 편안한 착용감, 다양한 색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제품에 따라 물세탁이 가능해 관리가 비교적 편리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르딕스키는 신솔레이트 소재를 적용한 휘게 노르딕패턴 플리스 재킷을 선보이고 있다. 미세 섬유 구조를 활용해 보온성과 방풍 기능을 높인 제품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

홈플러스, ‘홈플 is Back’

한돈 삼겹살·한우 등심 반값

홈플러스가 가을을 맞아 주요 신선식품과 제철 먹거리, 생필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28일까지 ‘홈플 is Back’ 행사를 열고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22~23일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과 목심을 멤버특가로 50% 할인한다. 23~25일에는 한우 2등급 등심을 50% 할인해 판매한다. 한우 등심은 1인당 2팩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제철 농산물 할인도 마련했다. 22~25일 적상추와 청상추, 당근, 시금치, 청경채, 알메기배추, 양파, 오이, 밤, 호박고구마 등 채소 11종을 멤버특가로 반값에 판매한다. 햇 납해안 생굴도 50% 할인한다.

과일은 고당도 감홍사과와 제주밀감, 제주타이베밀감 등을 할인 판매한다. 국산 포도 전 품목과 유명 산지 단감도 특가로 선보인다.

수산물과 간편식 할인도 이어진다. 부산 간고등어는 50% 할인하며, 국내산 흰다리새우와 아르헨티나산 손질 붉은새우도 멤버특가로 판매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5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
대한나눔연맹
KOREA SHARING FEDERATION

QR 인식

나이 든다는 이유로 '외로워'져야 할까요?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어르신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걸을 지켜드릴 때입니다.
노인의 날, 어르신을 위한 나눔에 함께해주세요

월 2만원

< 혼자가 아닌 하루 선물하기

후원문의

1811-1004

ARS
무기명후원

060-708-1004 (1만원)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사)한국나눔연맹

전국 26개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34년간 정부지원 없이 나눔활동